

“더 나은 소득·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

송하진 지사는 2일 정유년 도정 키워드로 '절문근사(切問近思)'를 제시하고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과 SOC 확충, 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분야에서 전북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의 새해 농업과 관광, 탄소산업의 비전을 체험할 사업추진 등을 들어보기로 한다.

▲ 새해 도정의 운영방향은

올해는 농업과 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들을 통해 더 나은 소득,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또한 U-20 FIFA 월드컵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잼버리 유치 일정도 확정된다.

이를 계기로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됨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하겠다.

새만금은 전북발전이라는 공식에서 빠지지 않는 상수임으로 공항, 항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따뜻한 도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산업화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정책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육성, 그리고 창의와 융합처럼 새 시대에 어울리는 공직문화로 도민의 바람에 부응해 나가겠다.

▲ 신년 도정 키워드, 절문근사(切問近思) 그 의미는

철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로 소통과 협업,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하면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겨 가지는 뜻에서 '절문근사'를 제시했다.

도정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숲을 보는 대국적인 자세로 균형 있게 추진하지만 실행에서만큼은 현실적 해법을 찾아 세심하게 해나가겠다.

그러려면 도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접근과 함께 도민과의 솔직한 소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전북도 공직자 모두가 이러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

▲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 어떤 실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올해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대를 달성했다. 액수 역시 전년대비 3.2% 증가한 6조 2,53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새만금과 SOC 확충, 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북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앞으로 7,100여억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으로 핵심 기반 시설 개발을 앞당기겠으며, SOC 분야에서 확보한 1조2,60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철도시설을 확충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

전북도정 3대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분야에도 1조7,000억원이 반영돼 앞으로 농업과 관광, 탄소산업의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세부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마무리와 소스산업화센터 설립,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내외 중저.식품 기업 유치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시기에 맞춰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을 14개시군 대표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아울러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메가탄소밸리 구축을 통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탄소법 시행을 토대로 도내 탄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에 노력하겠다.

▲ 탄핵 정국으로 2023 잼버리 유치가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2023 잼버리는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며 800여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올해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경쟁국인 폴란드에서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회 유치전

에 뛰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얼마 남지 않은 총회를 앞두고 폴란드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득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탄핵 사태로 대의 이미지가 하락해 잼버리 유치가 불뿔이 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북도는 아프리카.유럽.중동.중남미 등에서 열린 지역별 잼버리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고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앞으로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공약화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3당과의 정책적 공조, 정책토론회 정례화,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생명용지 1개 공구가 최초로 완공되고(5공구) 산업단지(2공구) 추가 완공을 통해 새만금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착공과 함께 동서도로 건설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기본 SOC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와 민간개발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만큼 매력 있는 투자처로 대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다.

▲ 전주를 금융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기금운용본부 신사옥을 11월 말에 완공하고 시험 가동 중이며, 올해 2월 말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300여명이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올해는 국민연금공단 창립 30주년이자,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개막 원년으로 큰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직원은 협력사까지 포함해 1,200명에 달하며, 이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의 중심기관이 전북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전북의 금융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비롯해 매일 3,000명(외국인 10%)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방문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북금융타운 개발 사업에는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의 전체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국제 수준의 전문적인 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금융타운 기본구상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기본 콘셉트가 확정되는 대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을 지원할 금융타운조성팀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나기면서 전북도가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메카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가겠다.

▲ 도민에게 덕담 한 마디

도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았지만 사회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임박했다는 말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세계가 감탄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적 수준과 품격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 도민의 역량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전북도 공직자는 우리 국민과 도민을 믿고 그 뜻에 따르면서 모두가 잘 사는 전라북도, 모두가 살고 싶은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길고, 깊은 현실적인 정책들이 쌓여서 먹거리가, 일거리가, 소득이 돼서 행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닭의 우렁찬 소리처럼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마다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인재물 기자

“공항·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대 달성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에 온 힘”

▲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조선업 위기를 비롯해 제조업계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발 금리인상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은 서민경제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올해 전북도정의 경제 정책 운용은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 통시장 현대화와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색 있는 명품 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우리 도민의 핵심 산업인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 시장을 넓히는 데에 집중하겠다.

혁신도시에 밀집된 농생명 국가기관과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

경제 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U-20 월드컵 개최와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가겠다.

▲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설치돼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수월해졌고, 투자자와 개발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법제화됐다.

내부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돼 올해부터는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뜻함과 정겨움이 가득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